

광주시·현대차·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삐걱'

현대차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 불발 이해 어렵다"

광주시, 노동계 설득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계속 추진 노동계, 투자협상 불참 선언... 시와 협의는 계속할 것

노사민정의 한 축인 지역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현대차 투자 자동차 공장 설립 관련 모든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을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해 광주 시·현대차 투자 합작법인 및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노동계도 시와 관련 협의는 계속할 예정이어서 향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노동계가 현대차 투자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현대차도 공식 입장을 내고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서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전제로 투자를 검토한 것

으로 노사민정 합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참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민정의 협의와 합의에 기반해야 향후 광주공장의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용섭 광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가 국내 공장 증설을 중단한 지 20년이 다 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노동계 불참 소식을 들었다"며 "광주에서 적정임금만 보장된다면 양산체제로 가고 다른 차종도 위탁 생산하는 등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현대차의 손

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지역노동계와 협의를 다시 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0일 전남 한국노총이 연봉 불만 등을 제기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임 연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했다. 이 부시장은 "전남 한국노총이 연봉이 2100만원에 책정됐으며 반발했는데 정확한 것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라며 "신설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투자협약서는 원칙적 수준을 명시하고 협약 체결 후에 경영수지분석을 할 때 구체적인 임금액이 결정된다. 주당 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현대에 3500만원 선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임단협이 아닌 만큼 노조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대측의 뜻에 따라 노조 측과 광주시, 현대와 광주시 등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던

차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이 터진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계 최초의 모델이자 노사민정 합의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는 개념 자체가 헛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전남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 2100만원만 받으라는 것은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중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추석 연휴 이후 현대차 투자 협상과 관련해 광주시와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 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투입해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 협약을 진행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판문점 도보다리 개장

벤치·원형 티테이블 설치

지난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으로 화제를 모은 판문점 도보다리가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재현돼<광주일보 8월 2일자 1면> 20일 첫 선을 보였다.

시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기존 길이 60m, 폭 2m의 목재데크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판문점 도보다리 이미지와 같은 벤치와 원형 티테이블을 설치했다.

안내편에는 두 정상의 회담 장면 사진을 담아 탐방객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재현한 판문점 도보다리는 실제라고 할 만큼

색상과 규모, 주변 환경까지 유사하다"며 "호수생태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도록 염원하는 뜻깊은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광주호 호수생태원 내 풀베기와 제조작업 등 환경정비를 마쳤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판문점 도보다리와 함께 3000여㎡의 코스모스 단지, 메타세쿼이아 데크 길을 따라 조성한 꽃무릇 군락지, 광주호 주변 언덕 8000㎡의 구절초 단지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난장 토크'

광주시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문화정책,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문화난장 토크를 했다.

이번 '문화난장 토크'는 문화전문가, 예술인, 체육인,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크를 통해 ▲광주-아시아 명절문화축제 '아시아랑' 개최 ▲디지털 광주관광대전 추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개최한 분야별 토크와 이번 문화난장 토크에서 제안된 사항 등을 검토해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이번 문화난장 토크가 작은 발걸음이지만 광주시의 문화정책 비전 수립에 큰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아베,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총리직 계속 맡는다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박차

아베 신조(63·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표 405표, 당원표 405표 등 810표 가운데 68.3%인 553표(의원표 329표, 당원표 224표)를 얻어 큰 표차로 승리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4표(의원표 73표, 당원표 18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 까지 3년이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도 2021년 10월인 만큼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선거 승리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됨에 따라 통상 총리직

재임일수에서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1848~1913) 전 총리(2886일)를 누르고 최장기를 기록하게 된다.

이번 총재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는 평소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여론이 강한 만큼 일단은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광주~부산 도시 공동 포럼 정중해 광주시 행정부시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부산 도시 공동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 심의 또 연기...10월 5일 재논의

찬반 양측 갈등 더 커질 듯

흑산공항 건설 결정 여부가 또 다시 미뤄졌다. 찬반 격론과 회의 연기 문제를 놓고 자정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하고 다음달 5일 이전 속행하기로 했다.

회의가 또 연기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

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밤 11시40분께까지 10시간 넘게 진행하다가 시간 관계상 정회를 선언하고 다음달 5일 이전 속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20일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또 연기

한 것이다.

심의를 거듭 지연되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된다.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온 신안 흑산도 주민과 전남도, 신안군 등 지자체는 실망하면서도 최악의 결과(부결)는 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했던 것과 달리 당장 가결되지 못해 아쉽다"며 "회의가 속행되면 건설 필요성을 꾸준히

히 설득하고 근거를 제시해 환경단체 등과 대립한 쟁점을 정리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새 서식지 등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하며 흑산공항 건설 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000㎡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춘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인쇄·출판
- 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 CI·BI
- 패키지
- 광고
- 북디자인



다자 비움

미니멀 라이프 디자인 스토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13-6 (금동) Tel. 062-225-7335 Fax. 062-225-7336 E-mail. bium7335@naver.com